

《青樓韻語》編纂背景 小考*

권호중** · 신민야***

<目 次>

1. 序論
2. 《青樓韻語》編纂背景
 - 1) 陽明學左派 登場
 - 2) 主情主義 成立
 - 3) 青樓產業 興盛
 - 4) 風月文化 盛行
 - 5) 日用類書 普及
3. 結論

1. 서론

중국의 16~17세기에는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고 화폐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명대 후기¹⁾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개인의 이익과 욕망의 추구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던 면에서 중국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문학작품에는 이러한 사회 기풍이 반영되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남녀의 성(性)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318)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초빙교수.

1) 티모시 브룩의 《쾌락의 혼돈: 중국 명대의 상업과 문화》에서는 명대 전기를 1368~1450년, 명대 중기를 1450~1550년, 명대 후기를 1550~1644년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의 명대 시기 구분은 이를 따랐다.

과 성욕(性慾)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직접 표현하는 경향이 형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의 주동적인 문학 창작으로 인해 많은 여성시집 총집이 편찬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청루²⁾의 시가총집인 《靑樓韻語》역시 명대 후기의 이러한 사회 기풍 아래 편찬되고 출판되었다.³⁾

《청루운어》는 明 萬曆 44년(1616)에 張夢徵이 편찬한 책으로 뜰에서 明까지 모두 180명의 기녀가 창작한 주요 작품 500여 수(시 451수, 사 46수, 곡 9절, 구 1연)를 수록한 기녀시 총집이다. 이 책은 여성 중에서도 기녀의 작품만을 전문적으로 수록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기존의 시문집과 다른 형식으로서 《嫖經》의 경문(經文)을 강목(綱目)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작품을 배열했다는 점 역시 매우 독창적이다.⁴⁾ 중국 고대의 시가 총집 중 기녀시만을 모은 것으로는 《청루운어》가 유일한데, 이 책은 기방 출입 안내서 성격을 가진 《嫖經》의 경문(經文)으로부터 경목(經目)을 만들어 그 아래에 시·사·곡의 순서로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⁵⁾ 《청루운어》에는 《嫖經》과 기녀시 외에 판화 12폭도 삽입되어 있다. 이 책의 권1이 시작하는 부분에는 ‘武林’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밑에 ‘環應居士朱元亮輯註併校證’과 ‘六觀居士張夢徵彙選併摹像’이라고 쓰여 있다. ‘武林’은 杭州의 옛 명칭이므로 《청루운어》 편집자인 장몽징과 주원량이 항주에서 활동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環應居士朱元亮輯註併校證’은 주원량이 《嫖經》의 주를 편집했음을, ‘六觀居士張夢徵彙選併摹像’는 장몽징이 시가를 수집하고 판화를 그렸음을 명시하고 있다. 《청루운어》에 실린 명대 기녀 중에는 강남 기녀가 많은데 이는 편집자 장몽징과 주원량이 항주 사람인 것으로 인한 지역적인 영향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靑樓’는 ‘기녀가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妓房’ 혹은 ‘妓樓’를 뜻한다.

3) 《청루운어》의 판본은 현재까지 5종이 확인되었으며, 본고는 明 萬曆 44년 각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 판본은 1994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간된 中國古代版畫叢刊二編·第四輯 《靑樓韻語》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청루운어》에 나오는 작품을 인용할 때는 모두 이 책을 저본으로 했다.

4) 이기훈·황영희, 《靑樓韻語》 판본 연구(《세계문화비교연구》, 47집, 2014, 6, 61쪽)

5) 말을 모으는 것은 《표경》의 경문을 근본으로 삼아 그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하여 조리 있게 보기에 편하게 했으며, 그 다음으로 주석, 다음으로 경목을, 그 다음으로 시·사·곡의 순서로 배열하고, 고금 세대의 이름순서는 그 안에서 또 각각 선후를 따랐다(彙語以嫖經爲綱上加一圍, 以便條覽, 次註釋, 次經目, 次詩, 次詞, 次曲, 而古今世代, 名次其中, 又各爲先後)(中國古代版畫叢刊二編·第四輯 《靑樓韻語》, 〈凡例〉, 24쪽)

기녀는 중국 고대 여성 작가의 한 축을 이루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녀들의 시를 한데 모아 놓은 《靑樓韻語》가 명 후기에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편찬 배경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陽明學左派 登場’, ‘主情主義 文學 成立’, ‘靑樓産業 興盛’, ‘風月文化 盛行’, ‘日用類書 普及’의 5가지로 나누어 이 책의 편찬배경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靑樓韻語》編纂背景

1) 陽明學左派 登場

농업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명대는 중기 즈음에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상공업이 점차 발달해가는 한편, 도덕적으로도 기존의 질서를 이탈하였다.⁶⁾ 인세의 확대로 책의 유통이 늘어났으며, ‘士’를 가장 윗자리에 두고 ‘商’을 말석에 두던 유교적인 모델에도 변화가 생겨 이들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 또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던 ‘里甲制’⁷⁾가 해체되면서 세습적 특권 지주가 나타나 이들이 영세한 농민을 하인으로 지배하는 등 여러 사회적 모순이 나타났다. 이렇게 변화해가는 명대 사회에서 자기 절제와 수양을 통해 본연의 성(性)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는 성리학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으로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성리학은 ‘性卽理’를 주장하는데 여기서 ‘性’은 선천적인 성(性), 본연의 성(性)을 가리킨다. 성리학에서 인간의 마음은 ‘性’과 ‘情’의 통일체이다. ‘性’은 ‘仁’·‘義’·

6) 명 正德(1506~1521) 연간부터 신분의 도덕적 구분은 경제적 구분으로 대체되었으며, 가족생활에서도 남녀노소의 위계질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상업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 많아지고 농사를 지어서 부를 얻는 사람은 드물어졌다(《쾌락의 혼돈: 중국 명대의 상업과 문화》, 193~204쪽)

7) ‘里甲制’는 명나라의 기층조직 형식으로 인구등록 제도의 기초였다. 명 태조 때 10戶를 묶어 1甲으로 하고, 110戶를 1里로 하였다. 이갑제는 명대 후기에 와서 인구의 증가와 이사하는 사람의 증가, 사람들간의 빈부차 증가, 상품경제 발전의 농촌사회에 대한 충격 등으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里의 우두머리인 里長과 그 지역의 세금징수를 담당하던 糧長의 지위가 대폭 하락하고, 농촌 사회의 지배권이 地主·土豪 등에게로 옮겨갔다.

‘禮’·‘智’·‘信’의 ‘五常’을 가리키며 아직 발(發)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발하게 되면 ‘情’이 나타나게 되는데, 발하면서 ‘中正’을 잃고 악으로 흐르기 쉽게 된다. 성리학에서는 ‘情’이 움직여 과도하게 되면 그것이 욕심이 되며 나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성리학에서 보는 인간의 마음은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욕망이 싸우고 있는 싸움터이며, 따라서 ‘기질의 성’⁸⁾을 극복하여 ‘본연의 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작은 생각의 움직임도 인간의 욕망으로 보아 억누르려고 하는 엄격주의가 생겨나며, 유교의 관습적인 도덕인 ‘禮’가 ‘理’의 표현으로 될 가능성이 열렸다.⁹⁾ 이에 비해 명대 중기에 등장한 양명학은 ‘心即理’를 주장했다. 즉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良知’가 바로 天理이며 ‘致知’는 지식을 닦는 것이 아니라 ‘良知’를 실현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는 천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자율적인 주체로서 인간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또한 ‘心’은 ‘性’과 ‘情’의 통일체이므로 ‘心即理’라는 것은 성리학에서는 부정하였던 ‘情’을 긍정한다는 것을 뜻하며 ‘情’에 대한 긍정은 ‘情’의 이탈상태인 ‘欲’에 대한 긍정까지도 포함한다.

양명학에 의해 ‘人欲’ 긍정의 가능성이 열린 후 양명학 좌파¹⁰⁾에 이르러서는 더 적극적으로 ‘人欲’을 긍정하게 된다.¹¹⁾ 양명학 좌파의 한 사람인 왕기(王畿)는 인간 본래의 본성을 긍정하며, 본성에 따라 행동해도 증용의 도(道)가 되며 도

8) 북송의 성리학자 程頤는 ‘기질의 性’은 ‘氣’에 의해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 되기도 하고, 덮여 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는 ‘性’이라고 했다.

9) 시마다 겐지 지음, 김석근·이근우 옮김, 《朱子學과 陽明學》, 까치, 1993, 110~114쪽.

10) 양명학은 양명이 죽은 후 左派와 右派로 나누어졌다. 좌파는 王艮(호는 心齋, 1483~1540)·王畿(호는 龍溪, 1498~1583)·顏鈞·何心隱(1517~1579)·李贄 등이 대표인물로 사회적 통념과 권위에 도전하여 기성도덕을 극단적으로 부정했다. 泰州學派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파는 정통적인 사대부파로 좌파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점차 성리학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11) 태주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양명학 좌파의 ‘욕망’의 긍정에 대해 《중국의 예치시스템》(미조 구찌 유조 외 지음, 동국대 동양사연구실 옮김, 청계, 2001) 215~217쪽에서는 王艮의 『鰍鱗說』을 인용하며 왕간은 인간인 이상 동일한 욕망을 품게 된다는 관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욕망의 동일성을 전제한 것이어서 욕망의 다양성 혹은 복수성이 상실된 발상이므로 이를 욕망의 해방으로 간주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성리학에 의해 억눌려 있던 ‘情’과 ‘欲’을 긍정했다는 점만으로도 양명학 좌파가 당시 문학 및 사회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

(道)에 부합된다고 보았다.¹²⁾

또 태주학파(泰州學派)의 창시자 왕간(王艮)은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바로 ‘道’라고 하여 성리학에서 신성시되던 ‘道’를 일상생활로 끌어내렸다.¹³⁾ 왕간(王艮)은 ‘道’ 즉 ‘理’가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라 보아 성리학에서 말하는 ‘道’의 절대성을 무너뜨렸다. 양명학 좌파의 하심은(何心隱)은 “性에서 맛도 느끼고 만물을 보며, 소리도 듣고 안일할 수 있으니 모두가 본성이다.”라 하였고, 안균(顏鈞)은 “사람이 財色을 좋아하고 탐함은 모두 性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양명학 좌파는 이지(李贄)에 이르러 그 진보성과 혁신성이 극에 달했다. 이지(1527~1602)는 인간의 평등과 남녀의 평등을 주장했으며¹⁴⁾, ‘人欲’을 긍정하고 ‘道’의 일상성을 주장했다. 또한 유교경전과 공자의 절대성을 부정하여 기존의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화시켰다.¹⁵⁾ 즉 이지는 ‘道’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여 ‘道’의 절대성을 부정했으며,¹⁶⁾ ‘옷 입고 밥 먹는’ 것과 같은 인간의 일상생활이 바로 ‘人倫’이라며 ‘人欲’을

- 12) “狂者の 의도가 단지 성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 행동에 감추지 않음이 있다. 비록 병폐가 있는 부분일지라도 그 마음이 밝고 초탈하여 조금도 숨기거나 덮어 가리지 않는다. 또 잘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극복하여 항상 엄밀하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중용의 도가 되니,가히 (그를) 격발하고 전개하여 도에 들어가게 한다(狂者之意, 只是要做聖人, 其行有不掩. 雖是受病處, 然其心事光明超脫, 不作些子蓋藏迴護. 亦便是得力處, 若能克念時時嚴密得來, 卽爲中行矣,可使激發開展以入於道)”(王畿, 〈與梅純甫問答〉, 《龍谿王先生全集》上, 臺北, 中文出版社, 1975, 105쪽)
- 13) “백성의 일상이 곧 도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어린 하인이 왕래하고 일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안배에 의탁하지 않은 것임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이다.(謂百姓日用卽道, 雖僮僕往來動作處, 指其不假安排者以示之)”(〈問答補遺〉, 《心齋文集》卷3)
“백성들 일상의 규범이 곧 성인의 규범이다. 성인은 알아서 잃지 않는 것이고, 백성은 알지 못해서 잃게 되는 것이다.(百姓日用條理處, 卽是聖人之條理處. 聖人知便不失, 百姓不知便會失)”(王艮, 《王心齋全集》, 臺北, 中文出版社, 1975, 46쪽)
- 14) “故謂人有男女卽可, 謂見有男女豈可乎? 謂見有長短卽可, 謂男子之見盡長, 女人之見盡短, 又豈可乎?”(李贄, 「答以女人學道爲見短書」, 《焚書/續焚書》59쪽)
- 15) 이지는 〈童心說〉에서 “然卽六經語孟, 乃道學之口實, 假人之淵藪也”라며 유가경전의 절대성을 부정하며, 〈答耿中丞〉에서는 “夫天生一人, 自有一人之用, 不待取給於孔子而後足也. 若必待取足於孔子, 卽千古以前無孔子, 終不得爲人乎?”라며 공자의 절대성도 부정했다.
- 16)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인륜이고 사물의 이치이다. 옷 입고 밥 먹는 것을 없애면 인륜도 사물의 이치도 없다.(穿衣吃飯, 卽是人倫物理; 除去穿衣吃飯, 無倫物矣)”(앞의 책, 〈答鄧石陽〉, 4쪽)

긍정했다. 양명학 좌파의 이러한 생각들은 《嫖經》의 경문(經文)을 강목으로 삼아서 《청루운어》라고 하는 기녀시 총집을 편찬하게 되는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다.

《靑樓韻語》는 《嫖經》의 경문(經文) 아래에 경문에서 뽑은 주제어로서 경목(經目)을 두고, 그 아래에 경목과 내용상 관련된 기녀시를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청루운어》에 실린 《표경》의 경문 몇 가지만 소개한다.

- 돈을 쓰는 것은 특히 화끈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환심을 사는 것은 모두 노력에 달려 있다(使鈔偏宜慷慨, 討情全在工夫.)¹⁷⁾

《嫖經》에는 기방 출입하는 남성들이 알아야 할 수칙에 대해 말한 것이 많은데, 위의 경문은 기방에서 남성이 돈을 아낌없이 쓸 것과 기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위의 경문에 대해 주원량(朱元亮)¹⁸⁾이 단 주석은 다음과 같다.

- ▲ 속담에서는 첫째는 노력이고 둘째는 돈이라고 하는데, 나는 노력이 여전히 두 번째라고 생각한다(諺云, 一要工夫二要錢, 予云, 工夫還第二.)¹⁹⁾

주원량은 기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돈이 우선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다음의 《嫖經》 경문도 기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 반약과 공형이 길을 함께 가면, 기녀를 기쁘게 한다. 장비와 소미도가 말을 나란히 하고 달리면 비난받을 일이 없다(潘安孔兄²⁰⁾同路, 而使妓歡.

17) 中國古代版畫叢刊(二編)·第四輯《靑樓韻語》, 153쪽.

18) 《嫖經》 경문에 주석을 단 주원량은 편찬자 장몽징과 마찬가지로 명 후기 사람이며, 생평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청루운어》 편찬자 장몽징은 범례에서 “주석은 주원량 선생의 명문장이나 내 뜻도 약간 참고자료로 삼았고, 옛 주석 가운데 조금이라도 속되지 않은 것은 모두 갖추어 기록하였다(註釋係元亮先生名筆, 愚意略爲參贊, 至舊註稍不俗者, 並得備錄)《靑樓韻語》, 24쪽”라고 밝히고 있다.

19) 《靑樓韻語》 153쪽.

20) ‘孔兄’은 돈을 가리킨다. 고대 동전의 모양이 원형 가운데 구멍이 있는 데서 유래하였는데

翼德²¹⁾味道²²⁾並驅, 不遭人議.)²³⁾

위의 경문에서는 남자가 서진(西晉)의 시인 반약처럼 잘 생기고 돈이 많으며, 성품이 장비(張飛)처럼 호쾌하여 돈을 잘 쓰고 당대(唐代) 소미도(蘇味道)처럼 인품과 외모가 조화를 이루면 기생이 좋아함을 말했다. 이 경문에 대한 주원량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 《수호전》에서 말하기를, 잘생긴 외모와 큰 성기, 돈과 세심함, 한가로움이
라 하였는데 단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水滸傳曰, 潘驢鄧小開²⁴⁾, 一字
少不得.)²⁵⁾

주원량은 《수호전》을 인용하여 기녀를 기쁘게 하는 다섯 가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인용한 《嫖經》 경문과 이에 대한 주원량의 주석을 보면 명 후기의 금전에 대한 중시, 성욕에 대한 긍정 등 당시 사회기풍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청루운어》에는 《嫖經》 경문의 내용을 주제로 한 500여 수의 시·사·곡 작품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을 주제로 한 일반적인 사랑묘사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운우지정(雲雨之情)이나 노골적인 성애를 연상시키는 작품이 실려 있기도 하다. 《청루운어》에 《嫖經》 경문을 실으면서 인욕(人欲)을 긍정하는 것이라든지 남녀 간의 사랑과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묘사한 작품까지 실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시의 양명학 좌파로부터 받은 사상적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

떨시와 익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서진(西晉)의 노포(魯褒)가 당시 돈을 숭배하는 세태를 비판한 「錢神論」에서 '孔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孔方兄', '孔方君', '方兄' 등으로도 불린다.

- 21) 《三國志》에 나오는 '張飛'를 가리킨다. '翼德'은 '張飛'의 자(字)이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호쾌했다.
- 22) 당대 정치가이자 문인인 蘇味道. 외모와 인품이 조화를 이루었다.
- 23) 《青樓韻語》, 154쪽.
- 24) '潘驢鄧小開'은 외모는 潘岳처럼 잘생기고, 성기(性器)는 수컷 당나귀의 성기처럼 크며, 돈은 등통(鄧通)처럼 많으며, 여자에게 세심하며, 여자와 함께 해 줄 시간이 많은 남자를 가리킨다. 반약은 西晉 시기 시인으로 고대의 잘생긴 남자로 손꼽힌다. 등통은 한(漢)나라의 큰 부자다.
- 25) 《青樓韻語》, 154쪽.

한 양명학 좌파의 사상적 경향은 명 후기 주정주의(主情主義) 문학사조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2) 主情主義 成立

명대 후기에는 양명학 좌파의 영향을 받아 사상적으로는 ‘人性’의 해방을 주장하고, 문학적으로는 복고파의 맹목적인 복고에 반대하여 ‘眞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문인들이 등장했다. 이지(李贄), 탕현조(湯顯祖), 원굉도(袁宏道), 풍몽룡(馮夢龍)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문학에 ‘眞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眞情이 표현된 민간문학의 가치를 긍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眞情’은 외부적인 견문, 지식, 복고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을 가리킨다.

이지(李贄)는 양명학 좌파의 핵심 인물로 관료제도를 지탱하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기만성을 폭로하였으며, 욕망의 논리에 따라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의 사상과 삶의 방식은 명 말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지는 ‘童心說’을 주장했다.

무릇 동심이란 것은 진심이다. 동심으로써 하지 못하면 이는 진심으로써도 하지 못한다. 동심이란 것은 거짓을 끊은 순수한 진실로서 최초의 한번 일으킨 생각의 본심이다. 동심을 잃게 되면 진심을 잃게 되고, 진심을 잃게 되면 眞人을 잃게 된다. 사람이 되어서 진실하지 않으면 완전히 근본을 다시 지닐 수 없게 된다.²⁶⁾

‘童心’은 眞心이며, 거짓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다. ‘동심’은 왕양명의 ‘良知’가 이지에 의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문학적으로는 바로 ‘眞情’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26) 夫童心者，眞心也。若以童心爲不可，是以眞心爲不可也。夫童心者，絕假純眞，最初一念之本心也。若失却童心，便失却眞心；失去眞心，便失却眞人。人而非眞，全不復有初矣(앞의 책, 〈童心說〉 98쪽)

이지가 '동심'을 주장했다면 탕현조(1550~1616)는 '情'을 주장했다.

세상은 모두 '情'이어서, '情'이 시가를 낳는다.²⁷⁾

'情'으로 인해 꿈을 이루고, 꿈으로 인해 희곡을 이룬다.²⁸⁾

탕현조는 '情'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정서이며 이것이 문학창작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또 '情'이 극에 달하게 되면 이를 문학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탕현조의 '情'은 이지(1577~1629)의 '동심'과 상통하는 것으로 탕현조 역시 양명학 좌파의 영향을 받았다. 탕현조는 이러한 사상적 영향 아래 그 자신이 희곡을 창작했던 뛰어난 희곡작가이기도 했다. 그는 희곡에 '眞情'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공안파의 영수 원굉도(1568~1610)도 이지와 탕현조의 영향을 받아 문학에 '性靈'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원중도의) 발자취가 미친 곳은 거의 천하의 절반인데, 시와 문장도 그로 인해 날로 발전했다. 대체로 오직 성령만을 표현하고 격투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 자기의 가슴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붓을 움직여 쓰려고 하지 않았다.²⁹⁾

원굉도의 '성령'은 인간의 진실한 감정 즉 '진정'의 다른 표현이며, 이는 이지의 '동심', 탕현조의 '정'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명 후기에 나온 여성시가 총집 《名媛詩歸》³⁰⁾ 서문에서도 여성의 시는 '진정'과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27) 世總爲情, 情生詩歌(湯顯祖, 「耳伯麻姑遊詩序」, 《湯顯祖詩文集》 1,050쪽)

28) 因情成夢, 因夢成戲(앞의 책, 〈復甘義麓〉 1,367쪽)

29) 足跡所至, 幾半天下. 而詩文亦因之以日進. 大都獨抒性靈, 不拘格套, 非從自己胸臆流出不肯下筆. 有時情與境會, 頃刻千言, 如水東注, 令人奪魄. 其間有佳處, 亦有疵處, 自不必言, 卽疵處亦多本色獨造語. 然予則極喜其疵處(袁宏道, 〈敘小修詩〉, 《袁宏道集箋校》 187쪽)

30) 《名媛詩歸》는 명 후기 경릉파(竟陵派)의 문인 중성(鍾惺)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欽定四庫全書總目》과 당시 시대배경 자료에 근거하면 중성이 직접 편집한 것이 아니라 당시 출판상이 《詩歸》가 유행하는 것을 보고 중성의 이름을 빌어 낸 것이다(王艷紅, 《明代女性作品總集研究》 64쪽)

시라는 것은 천연(天然)의 소리여서 법식과 모방을 빌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다. …… 그런데 고급의 이름난 여인들은 ‘情’에서 나오고, ‘본성’에 근원을 두었으므로 일찍이 모방하여 창작한 적이 없으니 또한 과별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³¹⁾

명 후기 주정주의(主情主義) 문학사조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풍몽룡(馮夢龍 : 1574~1646)이다. 풍몽룡은 노래·소설·희곡 등 백화로 쓰여진 통속문학의 수집과 편찬에 정력을 쏟았으며, 사상적으로 이지의 영향을 받았다. 풍몽룡은 역대 필기소설 등에서 남녀의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선록한 단편소설집 《情史》에서 “육경은 모두 ‘情’의 가르침이다(六經皆以情教也)”³²⁾라고 하여 ‘情’ 지상주의의 관점을 보여준다. 풍몽룡은 인간 특히 남녀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龍子猶’라 서명한 《情史》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세상에 만약 ‘情’이 없다면, 모든 사물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³³⁾

풍몽룡은 우주 생성의 근원을 ‘情’으로 보고, 사람이면서 ‘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니 ‘情’은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만물은 정에서 생겨나고, 정에서 죽는다.³⁴⁾

사람이면서 정이 없으면, 비록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곧바로 그가 죽었다고 말한다.³⁵⁾

31) 詩也者，自然之聲也，非假法律模倣而工者也。……若夫古今名媛，則發乎情，根乎性，未嘗擬作，亦不知派(胡文楷，《歷代婦女著作考·附錄二 總集》41쪽)

32) 馮夢龍，《情史·敘》，馮夢龍全集 37, 1쪽.

33) 天地若無情，不生一切物(馮夢龍，《情史·情史敘》，馮夢龍全集 37, 7쪽)

34) 萬物生于情，死于情(馮夢龍，《情史》卷23〈情通類〉總評，馮夢龍全集 38, 上海古籍出版社, 1993, 2, 227쪽)

35) 人而無情，雖曰生人，吾直謂之死矣(馮夢龍，《情史》卷23〈情通類〉總評，馮夢龍全集 38, 1993, 2, 227-2, 228쪽)

사람이 정에서 살고 죽지, 정이 사람에게서 살고 죽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도 정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이 죽어도 정이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다.³⁶⁾

지금까지 살펴본 이지, 탕현조, 원굉도, 풍몽룡 등의 문인들은 명 후기에 ‘眞情’의 표현을 중시하는 주정주의(主情主義) 문학사조를 이루었으며, 기녀들의 ‘眞情’이 표현된 기녀시 총집 《청루운어》는 바로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청루운어》〈韻語序〉 중 일부를 소개한다.

아! 저 여인들은 진실로 이미 떨어진 꽃이 되었으니 당시의 혼백은 겹겹의 땅으로 돌아가고 윤택함도 마르고 운명이 다했으며 마음 씩씩이도 없어지고 세월도 옮겨갔지만 남아 있는 작품들은 여전히 향기롭도다. 그래서 오늘날 강남의 남녀들이 모두 따라서 그것을 익히고 있다.

이에 장몽정이 그 작품들을 모아서 시집을 만들고 내용을 헤아려서 그림을 그려서 천년 세월 남녀사랑의 지극한 모범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제대로 풀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주원량이 《표경》을 다시 편철(編綴)하였다. 그러면서 “어찌 감정을 증폭시키고 욕정을 끌어내는 책을 짓는다고 하여 사람의 덕성을 훼손시키겠는가?”라고 말했다. 저 《표경》은 청루의 정황들을 묘사하고 있으니, 각양각색을 모두 갖추어서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서 온 세상의 기지와 지혜가 숨겨져 있고 환상과 망령을 드러내고 감춤이 역시 감정에 다 나타나고 있다. 단지 난봉꾼만이 그 진철을 주의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일상 사람들도 도움으로 삼아야 할 나침반 같은 책이다.³⁷⁾

위의 〈韻語序〉는 1616년 《청루운어》가 출간될 때 쓰여진 것으로 장몽정이 편집한 詩詞는 남녀사랑의 지극한 모범이며 주원량이 편집한 《표경》은 청루의 정황을

36) 人生死於情者也, 情不生死於人者也. 人生而情能死之, 人死而情又能生之(馮夢龍, 《情史》卷 10 〈情靈類〉總評, 馮夢龍全集 37, 859쪽)

37) 噫! 彼婦固已華落, 當年魄歸重壤, 澤枯運謝, 機息時移矣, 而餘韻猶香. 卽今三吳士女, 類沿習之. 夢徵氏彙爲集, 揣摩爲圖, 示千古鍾情之極則也. 而懼不可訓, 元亮氏復爲編綴嫖經. 其言曰, “豈爲增情導慾之資, 損人德哉?” 夫嫖經摹寫靑樓情狀, 眉目肺肝都具, 盡乎態矣. 人情不相遠, 舉人世機慧伏匿, 開闔幻妄, 亦盡乎情矣. 匪第蕩子宜揚覆轍, 尤涉世者所資南車.(《청루운어》, 3-5쪽)

묘사하여 각양각색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남녀사랑의 지극한 모범’이라 말한 것은 바로 기녀시를 가리킨다. 기녀시는 대부분이 사랑을 노래한 情詩로 증답시와 이별시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청루운어》에는 총 128개의 경목이 있는데 기녀시의 대략적인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경목 [이별(離別)]과 [기녀 머리 올리기(梳籠)] 아래 수록되어 있는 시를 각각 한 수씩 살펴본다. 경목 [이별(離別)]의 경우 시 61수, 사 7수, 곡 1결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명대 기녀 최중문(崔重文)의 8수로 구성된 연작시 〈황현용과 이별하며(別黃玄龍)〉 중 제 5수³⁸⁾를 소개한다.

君心未去妾先行, 그대 마음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떠나니,
相顧無聲覺淚聲. 서로 돌아보며 말 없이 눈물 흐르는 소리 느끼네요.
別後何人照憔悴, 이별 후 누가 초췌해진 당신을 돌봐줄까요,
空餘明鏡解含情. 부질없이 남은 빈 거울만이 제 품은 정 알아주겠지요.

황현용을 떠나며 쓴 이 시에서는 15년간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는 기녀 최중문의 애절한 마음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 황현용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함께 이별 후 초췌해지고 힘들어 할 황현용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어서 경목 [기녀 머리 올리기(梳籠)]에 실린 4수의 시 중 한 수를 소개한다. 명대 기녀 이경영(李慶英)의 〈답시(答詩)〉³⁹⁾이다.

自昔瓜初破,	예로부터 첫경험할 때
翻羞李是仙.	부끄러운 몸을 뒤집으면 자두같은 성기는 천상의 열매죠.
小開連理竇,	두 몸을 연결하는 구멍 살짝 열어,
微創合歡眼.	합환의 동침 그윽이 처음 했지요.
綽約非姑射,	부드러운 모습으로는 고사(姑射)만 못하고,
便娟豈洛川.	가볍고 아름다운 자태 어찌 낙수 여신만 할까요.
敢矜年最少,	나이 가장 어리다 감히 자랑하며,

38) 《靑樓韻語》, 132쪽.

39) 《靑樓韻語》, 167쪽.

惟倚壻相隣. 오직 낭군의 사랑만 의지해요.

이 시에는 어린 기녀가 손님을 맞아 처음으로 성경험을 하는 수줍은 마음과 낭군이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첫 구에서 '瓜初破(오이가 처음 갈라지다)'는 16세인 여인을 가리키거나 여인의 첫 경험을 말하고, 둘째 구의 '李是仙'은 서왕모가 '蟠桃'보다도 더 아낀다고 하는 선계(仙界)의 '黃中李(연노란 자두)'를 가리킨다. 첫 경험하는 여인의 성기는 선계의 자두에 비견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녀시에는 거짓이나 가식이 없이 기녀들의 진솔한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기녀시가 명대 후기에 《청루운어》로 편집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에 名妓와 才女가 많았던 이유도 있지만, 그 시대의 사회 기풍과 문학 풍조로부터 받은 영향 역시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명말이 名妓의 전성기인 것은 그 시대 정치·경제·사회·사상과 문화가 우연히 만난 필연이라 할 수 있으며, 이 필연에는 명기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준 남성 문인들의 역할이 컸다.⁴⁰⁾ 《청루운어》의 편찬자 장몽징과 주원량 역시 기녀시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었기에 기녀시를 책으로 편찬하는 것이 가능했다. 명 중엽 이후에는 거의 모든 문학 즉 소설, 희곡, 시, 사, 산곡 및 산문, 필기 등에 性이나 남녀성욕에 대한 묘사와 표현이 등장하였다. 《청루운어》도 기녀시를 수록한 책이라 性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보인다. 이러한 기녀시의 가치를 인정해 준 남성 문인들은 대부분 명 후기 양명학 좌파의 등장과 이로 인해 형성된 주정주의(主情主義) 문학사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3) 靑樓産業 興盛

중국은 명대에 이르면 방대한 상인 계층이 형성되어 그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40) 최수경은 〈明末의 기녀를 둘러싼 문화적 이미지와 그 의미〉(《중국어문논총》, 제31집, 2006.12. 234~238쪽 참조)에서 명대의 기녀 문인들이 규방의 여성문인들과 차별되는 점이 '그들 자신의 글'보다는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그들에 관해 쓰여진 글'에 의해 더욱 신화화되고 불멸의 이미지로 남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고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명초에 상인이 생겨난 것은 집에서 농사만 지어서는 생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장사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명 후기에 와서는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경제가 번영했다. 명 후기 풍몽룡의 소설 《醒世恒言》 권18 〈施潤澤灘闕遇友〉에는 상품 생산자가 부를 축적하는 예가 나온다. 소주부(蘇州府) 오강현(吳江縣) 성택진(盛澤鎮)의 시복(施復)이라는 사람은 소규모로 비단을 짜다가 30~40개의 비단직조기를 소유한 공장 주인이 되며, 파산한 그의 이웃들이 施復의 공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활하게 된다. 이는 소설이기는 하지만 수공업 분야에서 생산자가 상인이나 자본가가 되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당시 사회상을 잘 보여주며, 이런 면에서 명 후기를 자본주의의 맹아기라 하기도 한다.

상업 발달이 가져다 준 경제적 풍요로움은 명대 사회 전반에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하였다. 당시 사회상을 歙縣의 知縣이었던 장도(張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상업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 많아지고 농사를 지어서 부를 얻는 사람은 드물어졌다. 부자는 더욱 부유해졌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흥한 자는 홀로 위세를 부리고 몰락한 자는 두려워 물러선다. 재물이 나는 곳엔 따르는 무리가 있지만 생업과 살림살이는 일정치 못하다. 교역은 부산하고 티끌만한 이익도 그러모았다.⁴¹⁾

명 후기는 특히 사회기풍이 세속화되고 오락 활동이 통속화되었던 시기였다. 또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는 한편 오락 활동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행의 기풍도 일어났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양명학 좌파의 영향을 받아 사상적으로도 자유로워지면서 남성의 자유연애와 기방 출입에 대한 흥미도 커졌던 시기였다. 당시 여행하는 남성에게 기루는 휴식과 오락의 장소였으며 청루업은 상업과 여행업의 발달과 함께 흥성했다. 《청루운어》에는 진(晉), 남제(南齊), 송(梁), 수(隋), 당(唐), 송(宋), 원(元), 명(明)의 명기 180명의 시·사·곡 509수가 수

41) 《쾌락의 혼돈》, 205쪽.

록되어 있는데, 이중 명대가 114명의 365수로 가장 많은 작품이 실려 있다. 명대의 명기가 이처럼 많이 실린 것은 편찬자가 명대 사람인 시대적 사정도 작용하였겠지만, 그 당시 청루업이 크게 번성하였던 모습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板橋雜記》序에 따르면 명초에 남경에는 16루⁴²⁾를 설치하여 관기(官妓)를 두던 제도가 있었다.⁴³⁾ 명나라 때의 관기(官妓)는 주로 범죄자나 포로·정적(政敵)의 여인들이었다. 또 몰락한 귀족의 부녀들과 학식과 예절이 있는 집안의 많은 여인들이 기루로 들어오기도 했다. 명초에는 관리들이 기루를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여 상인들만 출입을 허용했다. 이렇게 관에서 세운 기루를 통해 지분전(脂粉錢)이라는 세금을 거두었고 상인들로부터 돈을 벌었다. 선덕(宣德: 1426-1435) 연간 초에 이르러서는 官妓를 금지하였으나 사대부들의 집에 거하는 기녀는 상관하지 않았으며, 관에 예속되지 않은 私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명 중엽에 와서 상인 수공업의 황금시기를 맞으면서 상업의 발달은 직접적으로 청루업의 번영을 촉진시켰다. 북방은 北京과 大同의 청루가 가장 흥성했고, 남방은 南京과 揚州의 청루가 가장 흥성했다. 大同의 경우도 妓籍에 올라 있는 사람만 2천여 명에 달했다 한다. 명대 중엽 이후부터는 특히 남경이 창기(娼妓) 사업의 중심이 되었는데, 《板橋雜記》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경은 모여드는 곳이고 남곡(南曲)이 화려한 지역으로, 돈많은 한량과 자유분방한 시인들이 왕래하며 즐기니, 말이 노니는 용처럼 많았고 수레가 서로 줄이었다. 그 사이 풍월 누대에는 술잔과 악기가 있었고, 또 남기(男妓)와 표객(嫖客), 곡예사와 유명 배우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고운 모습을 다투느라 끊임 없이 분주하였다. 버드나무가 풍경 밖에 있고, 한 조각 옥이 술병에 들어 있고, 가을 피리 빈번히 불어대고, 봄 피꼬리 갑자기 울어댄다. 비록 송광평처럼 철석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매화를 위해 부(賦)를 짓지 않을 수 없다.⁴⁴⁾

42) 책에 따라서 14樓 혹은 15樓로 기록의 차이가 있긴 하나, 관에서 기루를 세운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43) 余懷, 《板橋雜記》, 南京出版社, 2006, 7쪽.

44) 金陵都會之地, 南曲靡麗之鄉, 納茵浪子, 瀟灑詞人, 往來游戲, 馬如游龍, 車相接也. 其間風月樓臺, 尊疊絲管, 以及鬢童狎客, 雜伎名優, 獻媚爭妍, 絡繹奔赴. 垂楊影外, 片玉壺中, 秋笛頻吹, 春鶯乍囀. 雖宋廣平鐵石心腸, 不能不爲梅花作賦也(余懷, 《板橋雜記》, 23쪽)

余懷가 위의 《板橋雜記》에서 묘사하고 있는 남경의 상황은 《청루운어》가 나온 만력(萬曆) 44년(1616년)보다 조금 뒤인 명말 천계(天啓: 1621-1627)~숭정(崇禎: 1628-1644) 연간의 일어난 하지만, 이 글을 통하여서 당시 남경을 비롯한 강남의 각 지역에서 기루가 번성하였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청루운어》에는 남경을 비롯한 강남 지역 기녀들의 시가 많이 실려 있다. 강남의 揚州 경우는 ‘揚州瘦馬’라 하는 독특한 청루문화가 있었다. 상인이나 지배층 귀족들에게 첩으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젊은 여자들을 양육하는 기이한 풍습을 가리키며 당시 양주 사회 전반에 유행하였다. ‘수마(瘦馬)’는 마른 여자를 뜻하는 말로 당시 ‘양주수마(揚州瘦馬)’는 모두 왜소하고 마른 체형을 가진 여자들이었다.

양주는 세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강과 호수가 아름다워서 여자들 대부분이 예쁘고 성정이 부드러우며 행동이 우아하고 지혜롭다. 이른바 ‘계곡의 지형에는 여성스러움이 많다’고 했듯이 역시 지혜롭고 아름다운 기운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양주 사람들은 흔히 여성을 진귀한 물품으로 여겨 시장에서 각지의 여자아이를 매매하는데, 공을 들여 치장시키고 서법, 세법, 거문고, 바둑 등을 가르쳐 높은 가격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수마’라 했다.⁴⁵⁾

崇禎황제의 田皇后도 ‘수마’ 출신이었다고 하니 ‘양주수마’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양주수마’가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시 염상(鹽商)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진 휘주(徽州) 상인들이 양주에 모여들었기 때문이었다. 양주의 작고 마른 ‘수마’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염상들을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했다. 이는 청루업의 흥성에 상인들이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장대(張岱)의 《陶庵夢憶》〈二十四橋風月〉은 양주에서 기루와 기녀가 많이 모인 곳으로 유명했던 초관(鈔關)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45) 維揚居天地之中，川澤秀媚，故女子多美麗，而性情溫柔，舉止婉慧。所謂‘澤氣多女’，亦其靈淑之氣所鍾，諸方不能敵也。然揚人習以此爲奇貨，市販各處童女，加意裝束，教以書算琴棋之屬，以微厚直，謂之瘦馬(謝肇淛，《五雜俎》，上海古籍出版社，2012，134-135쪽)

명기는 숨어 있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며, 안내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하층 기녀는 많아서 대략 오육백명이며, 매일 저녁 무렵 기름으로 목욕하고 향초를 태우며 골목 입구에 나와, 찻집이나 술집 앞에서 배회하고 다리를 뻗고 앉아 있는데, 이를 ‘참관(站關)’이라고 한다. 찻집과 술집·언덕의 위 아래에 흥등이 수없이 켜지고, 기녀들은 그 사이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며, 피부가 거친 기녀는 커튼에 있었고, 발이 큰 기녀는 문지방에 있었는데, 등 앞과 달 아래에서는 사람이 원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이른바 “피부가 희면 수많은 추함을 가릴 수 있다”는 것으로 분의 위력이었다. 한량들과 지나는 손님들이 오고 감이 베풀 북처럼 빈번했으며, 눈을 맞추어 서로 보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다가가서 잡아끌고 갔다. 기녀들이 갑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손님을 맞이하며 먼저 가면, 손님은 자연스레 느린 걸음으로 뒤따라 갔다. 골목 입구에 이르면 망보는 사람이 있어서 골목의 문을 향해 소리쳐 말했다: ‘아무개 아가씨 손님 오셨어요.’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컸다. 등불을 들고 즉시 나와서 하나하나 짚지어 들어가면 남은 사람은 불과 이삼십 명이었다.⁴⁶⁾

위의 글을 보면 명 후기 청루업이 흥성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남경과 양주는 강남에서 청루업이 가장 번영했던 곳이다. 《청루운어》의 편집자 장몽징과 주원량 역시 강남의 항주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기녀시 총집 《청루운어》는 당시 강남 지역에서 이처럼 청루업이 흥성한 가운데서 탄생했다.

4) 風月文化 盛行

명 후기에는 양명학 좌파의 사상적 자유로움과 ‘情’을 중시하는 사회기풍으로 인해 남녀간의 풍월문화(風月文化)가 크게 유행했다.⁴⁷⁾

46) 名妓匿不見人，非向導莫得入。姝妓多可五六百人，每日傍晚，膏沐薰燒，出巷口，倚徒盤礴於茶館酒肆之前，謂之“站關”。茶館酒肆岸上下，紗燈百盞，諸妓掩映閃滅於其間，疤盤者帘，雄趾者闕，燈前月下，人無正色，所謂“白能遮百丑”者，粉之力也。游子過客，往來如梭，摩睛相覷，有當意者，逼前牽之去；而是妓忽出身分，肅客先行，自緩步尾之；至巷口，有偵伺者，向巷門呼曰：‘某姐有客了。’內應聲如雷，火燎即出，一一俱去，剩者不過二三十人(張岱，《陶庵夢憶》，上海古籍出版社，2011，66-67쪽.)

47) ‘風月’은 원래 밤 경치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시어(詩語)로 사용되었는데 후대에 와서는 문학작품 속에서 성과 관련된 행위와 활동, 혹은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로 변해 갔다. 특히 명대부터는 성애(性愛)와 남녀 간의 사랑을 대신하는 용어가 되었는데, 명 후기에는 이 단어가 문인과 기녀 사이의 교류를 나타내는 의미로 주로 쓰였다. 그러나

명 후기에 기루를 출입하는 남성은 대부분 문인과 상인이었는데 이들은 기녀시와 《표경》이 결합된 《청루운어》의 잠재적 독자이기도 하다. 명 후기에는 기녀가 상인이나 문인과 연애를 거쳐 결혼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청루운어》의 《표경》에도 다음과 같은 경문이 있다.

- 자태가 가볍고 요염하면 결국은 예쁜 얼굴만 팔게 되지만, 품행이 침착하고 가볍지 않으면 양인에게 시집갈 수 있다(舉止輕盈, 終於賣俏, 行藏穩重, 乃可從良)⁴⁸⁾

주원량은 이에 대해 “지금 시집가는 기녀는 도처에 얼마든지 있다(今從良者比比矣)”고 주석을 달고 있어서 명 후기에 기녀가 妓籍에서 벗어나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청루운어》를 편찬한 장몽징과 《청루운어》의 강목(綱目)인 《표경》에 주석을 단 주원량에 대해서는 생평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청루운어》와 같은 역대기녀시 총집의 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 역시 기녀와의 교류가 빈번했던 사람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장몽징의 경우에는 《청루운어》에 실린 시 가운데 명대 기녀가 쓴 시의 제목에 그의 이름이 세 번이나 등장한다. 즉 유양(維揚, 지금의 江蘇省 揚州市)의 기녀가 쓴 〈贈張夢徵⁴⁹⁾〉, 孫娟이 쓴 〈携手曲寄張夢徵⁵⁰⁾〉, 王觀微가 쓴 〈寄張夢徵六兄⁵¹⁾〉이 그것이다. 시 내용이 장몽징과 사랑을 나누거나 장몽징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 《청루운어》의 편찬자 장몽징이 기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기녀들과 교류를 빈번히 했던 사람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세 수의 시 중 두 수를 살펴본다.

왕관미가 쓴 〈寄張夢徵六兄〉을 먼저 소개한다.

이러한 풍월문화라는 말은 명 후기 상업의 발달과 함께 사회의 새로운 계층으로서 성장한 상인집단으로 인하여서 상인과 기녀 사이의 사랑과 교류도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風月文化’의 의미를 문인과 기녀의 교류와 함께 상인과 기녀의 교류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시켜 서술하였다.

48) 《靑樓韻語》, 85쪽.

49) 《靑樓韻語》, 41쪽.

50) 《靑樓韻語》, 213쪽.

51) 《靑樓韻語》, 310쪽.

一鏡初開水上粧. 거울 같은 달 막 떠올라 물위에서 화장하고
 漣漪風細過來香. 잔물결 일으키며 바람 솔솔부니 향기 전해오네.
 閑凭畫檻沉吟久. 한가로이 채색 난간 기댄 채 깊은 신음 오래하다가
 摘得蓮花憶六郎. 연꽃 꺾어 들고 님을 그리워하네.

이 시에서는 달밤에 기녀 왕관미가 난간에 기대어 장몽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시를 통하여서 두 사람간의 교류가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孫娟이 쓴 〈携手曲寄張夢徵〉이다.

携手惜芳菲, ‘휴수곡’ 노래에 봄 향기 안타까워
 爲歡須及早. 환락 행함은 반드시 아침까지 하셨네.
 歡情若流水, 환락의 정은 흘러가는 물과 같지만,
 儂意猶芳草. 내 마음은 향기로운 풀과 같다.
 芳草解留人, 향기로운 풀은 사람을 붙잡을 줄 알고
 流水尙有澗. 흘러가는 물에는 그래도 곁에 절벽이 있네.
 歡極寧再顧, 환락을 다하면 어찌 다시 돌아봐주시리
 一去鸚飛塵. 한번 떠나면 흩날려 먼지처럼 날아가실 것인데.

위의 시에서 기녀 손연은 장몽정과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말하면서, 환락을 즐기고는 떠나버리는 장몽정과 같은 남성에 대하여 기녀로서의 복잡한 심정을 읊고 있다. 떠나는 님은 흘러가는 물이요, 보내는 자신은 향기로운 풀이요, 머물러 있는 물가의 절벽과 같다. 장몽정과 같이 기루 출입이 빈번한 남성과 손연과 같은 기녀의 사랑은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번 절에서는 《청루운어》 탄생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명 후기의 ‘풍월문화’를 상인과 기녀의 연애, 문인과 기녀의 연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인과 기녀의 연애

명대 중엽 이후에는 상품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상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명말 청초를 지나면서는 士農工商의 틀을 깨고 상인이 사대부계층과 같은 지위에 오르는 신분 상승이나 신분과괴와 같은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사대부 가문의 유학자 중에 학문을 버리고 상인이 되는 '棄儒而商'이나 상인이 상업보다는 유학을 공부하겠다는 '商而好儒'의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인을 '儒商'이라고 불렀다. 儒商은 명대 중엽 이후 인구증가와 상공업 발달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정통유학에 대한 사상적 도전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계층이다. 이들은 특히 상업 목적의 서적출판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비싼 값을 받기 위해 희귀본이나 학술성이 높은 도서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소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儒商의 대표적인 예는 당시 徽州府 소속이었던 徽商이었다. 이들은 鹽業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식량·포목·차·목재·典當·刻書·制墨 등도 같이 경영하였다. 黃正位, 黃啓高, 吳勉學 등은 모두 安徽 歙縣 출신의 徽商으로 서적출판에 공헌이 컸다.⁵²⁾

명 후기에 상인들은 이처럼 서적 출판에서 뿐 아니라 청루업이 흥성하게 된 데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장사를 하러 타지에 장기간 머무는 경우가 많았기에 기방출입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상인들은 돈을 내고 기방에서 기녀와 하룻밤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기녀와 진지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풍몽룡의 소설 '三言'에 보면 李秀卿과 黃善聰(《李秀卿義結黃貞女》), 宋金과 劉宜春(《宋小官團圓破氈笠》), 劉奇와 劉方(《劉小官雌雄兄弟》)은 모두 상인과 기녀간에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하는 예로 나온다. 물론 소설 속의 인물들이긴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청루운어》의 《표경》에도 상인들의 기방 출입과 관련된 경문이 있다.

- 장사를 이것저것 하다가 이윽고 포기하게 되면 한 해가 넘도록 기루에서 노닌다. 떠날 채비로 막 급한데도, 처음으로 오늘밤 기루에서 묵는다(營運多方已拚, 經年遊柳陌. 行裝剛促, 始於今夜宿花街.)⁵³⁾

52) 권호중·황영희, 〈明清商人的 藏書文化〉, 《中國學報》 제60집, 2009, 78-82쪽 참조. 《靑樓韻語》의 출판 역시 상업적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편찬자 장몽정과 주원량이 儒商, 특히 徽商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靑樓韻語》에 실린 12쪽의 판화는 명대의 유명한 徽派 刻工인 黃一彬·黃端甫·黃桂芳이 함께 판각한 것인데, 徽派 판화는 명대 중엽 徽州(지금의 安徽 歙縣)에서 흥기한 판화 유파로 명대 萬曆 연간에 가장 흥성했다. 《靑樓韻語》가 만력 44년(1616)에 출판된 것을 고려하면 장몽정과 주원량-徽商-徽派 刻工 사이의 연관성 역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문을 해설한 주석에 “부채가 방값으로 바뀌니, 청루에서도 오히려 비웃는다. 기생질도 부채이니, 갚아야만 한다. 장차 떠날 때에 하고 싶은 흥취가 생겨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뿐이다(課錢轉倒房金, 綃帳却笑. 嫖亦債負, 准折也. 將去而發此興, 了願而已)라고 하였다. 오랜 시간 기루에서 놀다가 기루에 빚진 방값도 못내어 비웃음을 사기도 한다. 그러다가 떠나기 전날에 처음으로 기녀와 하루를 보내며 뜻을 푼다는 것이다.

이 경문 아래에 있는 경목 [오늘 밤(今夜)]에는 명대 강릉(江陵) 기녀가 쓴 〈예실경이 무호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며(送芮實卿還蕪湖)⁵⁴⁾〉가 실려 있다.

君家旅寓楚江平, 그대는 고요한 초의 장강 가에 객거하시는데,
今日相逢識姓名. 오늘 만나게 되어 이름 알았지요.
却恨明朝又離別, 내일 아침이면 또 이별하게 됨이 오히려 한스러우니,
相思一夜繞蕪城. 그리움만이 이 밤 무성을 휘감네요.

시의 내용으로 보아 강릉 기녀가 하룻밤 사랑을 나누고 떠나는 상인 예실경을 보내며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설한다면, 예실경은 장사에 실패하여 일 년이 넘도록 기원에서만 노닐다가 떠나기 전날 겨우 기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돈을 쌓아 기루에 들어가고, 잘 경영해서 기루에서 노닐기도 한다.(堆垛入秦樓, 經營遊楚館)⁵⁵⁾

이에 대한 주원량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 돈은 없더라도 그래도 채워 넣어야 한다. 실령 확 쓰지 못함은 있을 지라도, 천리길 장사하다보면 객지생활 고단하니 기생질 없을 수 없다.(無錢尙要搨補來, 既有寧不揮霍, 經商千里, 旅況淒然, 嫖亦少不得.)

53) 《靑樓韻語》, 208쪽.

54) 《靑樓韻語》, 209쪽.

55) 《靑樓韻語》, 206쪽.

이 경문과 주석에서도 상인이 객지에서 장사하다가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장사 해서 번 돈을 들고 기루에 가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경문 아래에 있는 경목 중의 하나인 [경영(經營)]에는 명대 기녀 서경홍(徐驚鴻)이 쓴 사〈멀리 떠나간 사람에게 줌(贈遠人)〉⁵⁶⁾ 1수가 실려 있다.

憐君客館無人省,	사랑하는 님은 객관(客館)에서 돌보는 이 없이
寂寞梧桐影,	오동나무 그림자만 적막한데
靑樓風月好耽情.	청루에 바람불고 달뜨니 사색하기 좋다.
沉香火底坐吹笙,	침향 태우는 불 가에 앉아 생황을 부는데
月華明,	달빛도 밝군요.
迢迢故國空相憶,	님의 고향 아득하여 부질없이 그리워하니,
悵積書難寄.	슬픔만 쌓이고 편지는 부치기 어렵네.
何如雲雨夢高唐,	고당(高唐)의 운우지정 어떠하였는지요?
意難忘.	그 기억 잊기 어렵네요.

이 사 작품도 타지에서 장사를 하다가 고향으로 떠난 상인을 기녀 서경홍이 그리워하며 쓴 것이다. 둘이 나는 운우지정을 달밤에 추억하고 있다. 이러한 기녀들의 시나 사를 보면 고향으로 떠나가는 상인들을 보내는 아쉬움과 이별 후의 깊은 그리움을 읽어낼 수 있다. 당시 상인들이 기방 출입을 빈번히 하고 때로는 기녀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결혼까지 했던 상황에 비춰 보면 《청루운어》가 출간되었을 때 상인이 주요 독자층의 하나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인과 기녀의 연애

명 후기 주정주의(主情主義) 문학사조의 영향을 받은 문인들은 ‘眞情’이 표현된 문학을 높이 평가하였다. ‘情’을 중시하고 향락을 중시하는 시대적 기풍 아래 명 후기 문인들은 명기(名妓)와 교류하고 또 이들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정신적인 해방과 진정한 애정을 갈망하는 표현방식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 시대 문인들은 명기와의 교류를 통해 신체적인 만족을 얻음과 동시에 정신상의

56) 《靑樓韻語》, 207-208쪽.

위안을 찾았다.⁵⁷⁾ 명 후기 문인의 생활에서 명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일부 분이 되었다.⁵⁸⁾ 이 시기 문인들이 청루에 출입하여 명기와 교류하고 연애하며 심지어 결혼까지 한 것은 세인들에게 덕행을 잃은 일로 비춰진 게 아니라 풍류와 낭만의 아름다운 일로 여겨졌다. 명 후기 명기들은 특히 뛰어난 재능과 기예(技藝)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인들이 명기의 문학과 예술에 대해 중시하고 인정한 점은 이들 명기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하였고, 이 시기 명기가 역사상 불후의 이름을 남기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여회(余懷)의 《板橋雜記》卷下〈軼事〉에 명 후기 명사(名士)들이 기생과 풍류를 즐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삼언이 박(三言二拍)’과 같은 명 후기 단편소설집에 기녀와 문인의 교류가 빈번히 등장하는 것 등을 보면 이 시기에 기녀와 문인간의 풍월문화가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인들은 기녀의 문학에 대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이 최초의 기녀시 총집인 《청루운어》가 탄생된 것과도 많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녀들과 교류한 명 후기 문인들은 대체로 양명학 좌파의 영향 아래 중국의 전통적인 윤리도덕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펼쳐내고 자아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문인 王穉登⁵⁹⁾과 馮夢龍⁶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王穉登은 기녀 馬湘

57) 명청시기 문인에게 있어 기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명 후기 主情主義 문학관을 갖고 있던 문인들에게는 명기와의 교류가 정신적인 해방과 진정한 애정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였고, 명말 청초 왕조가 교체되던 시기의 문인들에게 기녀는 애국과 충절 혹은 명 왕조가 남긴 유산의 의미였고, 청 중기의 지식인들에게는 미모와 기예를 자본으로 삼아 유랑하는 기녀들이 지식을 직업화하여 이리저리 떠도는 자신들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청말의 민족주의자들에 이르게 되면 다시 명말 청초처럼 기녀의 충절에 주목하였다(최수경, 「清代 '靑樓筆記'의 양상과 그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어중문학》, 제51집, 34~36쪽)

58) 陳寶良은 〈明代文人辨析〉에서 명 후기 문인들은 대체로 오만하고(狂傲), 언어가 경박(言語輕薄)하고, 기방 출입(狎妓)을 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보았다(《漢學研究》第19卷, 第1期, 2001, 206~207쪽)

59) 명 후기 시인으로 자는 伯穀 또는 百穀이며 호는 靑羊君, 廣長庵主, 松壇道人 등이다. 江蘇 江陰 사람이다. 희곡·소설·산문·시가 등을 남겼으며 이름난 서예가이자 은자이기도 했다. 吳中 지역 주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문학사상은 전기에는 북고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가 후반부에는 전변하여 공안파 등의 영향을 받았다. 왕치등은 기녀 마상란의 시와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와 깊은 교류를 하여 명 후기 문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60) 풍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57세 때 국자감에 공생(貢生)으로 들어가 관리가 되는 자격을 얻을 때까지 약 40년에 걸쳐 응시와 낙제를 거듭하였다. 거듭되는 낙제에다 폐락

蘭, 馮夢龍은 기녀 侯慧卿과 사랑을 나누었다.

사실 명대의 청루는 결코 매음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와 그림을 논하는 우아한 곳이기도 했다. 명대 문인의 마음 속에서 기녀의 예(藝)는 색(色)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명 후기의 명기는 개성과 풍도 면에서 속되지 않고 청아(清雅)하였다. 문인들은 명기의 외모뿐만 아니라 풍도와韻味를 더욱 좋아하였다. 명기들이 문사들의 심리에 영합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시문에 젖어 있는 생활습관은 이들의 기질로 하여금 탈속의 경향을 가지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고고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우아함을 찾는 문인들의 심태에 꼭 부합되게 하였다. 기녀는 특히 명 후기에 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된다. 이 시기에 문인에게 있어서 기녀와의 교류는 사상의 자유, 인성의 해방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당시 문인들과 교류하던 명기들은 남성 수준의 학문적 소양을 가져야 했고, 남성 문인들이 향유했던 시(詩)·서(書)·화(畫)를 배웠다.⁶¹⁾ 따라서 명 후기 기녀들의 시를 포함한 청루문화는 실제로는 사(士)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청루언어》의 편찬자 장몽징과 주원량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생평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명 후기인 16-17세기에 江南지역에서 활동한 주변부 문인 또는 상인출신의 문인인 儒商들의 기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그 당시 강남지역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거나 낮은 관직에 있던 '주변부 문인' 들이 책 출판에 개입하기도 하고 직접 독자가 되기도 했는데⁶²⁾, 명 후기 통속문학의 기수였던 풍몽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상인과

지향 또한 강했던 풍몽룡은 실의를 달래기 위해 청년 시절부터 장년 시절까지 기방에 드나들며 방황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풍몽룡은 기녀를 유희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녀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동정했다. 풍몽룡은 당시 명기였던 후혜경(侯慧卿)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를 妓籍에서 빼어낼 능력이 없었다. 결국 어떤 상인이 나타나서 후혜경을 妓籍에서 빼주었고, 후혜경은 풍몽룡을 떠나 상인에게 시집을 갔다. 실연을 당한 풍몽룡은 〈怨離詞〉 30수와 〈端二憶別〉에서 후혜경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했다. 풍몽룡처럼 명 후기 문인들은 이렇게 당시 기녀들의 재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녀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61) 《쾌락의 혼돈: 중국 명대의 상업과 문화》, 300쪽.

62) 명 후기인 만력 연간에서 청초에 이르기까지 특히 여성시가 편집은 일종의 사회풍조가 되었다. 당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주변부 지식인들은 여성선집의 편찬과 출판으로 인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가선비의 입언의 뜻도 이루었다.

명 후기를 지나며 새로 등장한 儒商의 성격을 가졌던 남성들 역시 기녀와의 교류를 통해 기녀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명 후기에 와서 기녀들의 시만 모은 《청루운어》와 같은 기녀시 총집이 나온 것은 이러한 당시 남성들의 기녀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후 청대에는 기녀의 작품을 수록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하여 여성시가총집에서도 기녀의 작품은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운주(惲珠)는 《國朝閩秀正始集》에서 천 명에 가까운 명문 규수의 작품을 수록했으나, 기녀의 작품은 모두 배제시켰다. 따라서 기녀시 총집 《청루운어》의 편찬은 명 후기만의 특수한 사회 기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5) 日用類書 普及

명초는 출판이 극도로 부진했으며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출간하는 방각보다 관에서 주도한 관각 중심으로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미미했던 명초의 출판상황은 天順(1457-1464)·成化(1465-1487) 연간에 와서 바뀌기 시작하여 오랫동안 간행되지 않았던 《사기》와 같은 고서도 다시 간행되기 시작했다. 弘治(1488-1505) 무렵에는 출판량이 전체적으로 급증하였으며, 정덕(正德: 1506-1521) 중엽에는 《한비자》가, 가정(嘉靖: 1522-1566) 중엽에는 《논형》·《목자》와 같이 儒家서적이 아닌 것도 간행되었다. 특히 《목자》는 ‘아비를 몰라보는 금수의 책’이라 일컬어지던 책으로 《목자》의 출판은 자유롭게 어떤 책이든 간행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명 후기에 이르면 이단이라 간주되던 책도 당당하게 출판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萬曆(1573-1619) 연간에는 과거시험 준비서적인 舉業書도 넘쳐날 정도로 많이 출간되었으며 특히 강남의 상업 출판은 대단한 활기를 띠었다.⁶³⁾

명대 초기 출판의 소강상태와 명대 후기 상업적 출판의 폭발적인 성장은 명대 대표적인 출판도시에 속했던 南京과 建陽의 예에서도 뚜렷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남경의 경우 홍무(洪武: 1368-1399) 연간부터 융경(隆慶: 1567-1573) 연간까

63) 이노우에 스스무 지음, 이동철·장원철·이정희 옮김, 《중국 출판문화사》, 민음사, 2013, 260-337쪽 참조.

지 200여년간 불과 55 개의 상업적 출판물이 나오는데 비해 만력 이후부터 명 멸망까지 70여년간 나온 상업적 출판물은 750여 개에 달한다. 건양 역시 홍무 연간부터 용경 연간까지 446 개의 상업적 출판물이 나오는데 비해 만력 이후부터 명 멸망까지는 970여 개의 상업적 출판물이 만들어졌다.⁶⁴⁾ 출판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명대 남경의 출판업자로 파악된 183명의 출판업자 중 절대 다수가 명대 만력 연간 이후인 16세기 중반 이후에 활동한 사람들이다.⁶⁵⁾ 상업적 출판물이 만력 연간에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여성 총집 역시 만력 연간부터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청루 시가집 《청루운어》 역시 만력 44년(1616)에 출간되었으므로 당시 《청루운어》가 편집될 수 있었던 것은 명 후기의 이러한 출판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⁶⁶⁾

명 후기 상업출판의 흥성은 당시의 경제발전과 시민계층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독자층의 형성으로부터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민계층의 독자들은 소설·희극·일용생활·통속적인 의학책 등의 독서물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예전의 주요 독자였던 관리와 지식인이 주로 유가경전과 역사서를 읽고 소일거리로 詩文과 詞賦, 筆記野史 등을 읽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日用類書가 신흥 출판물이자 문화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類書⁶⁷⁾는 각 사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한 서적으로 초기에는 황제나 사대부 등의 상류계층이 시를 짓고 글을 쓰는데 참고한 공구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유서는 대체로 백과전서와 자료총집

64) 루실 차(Lucille Chia), 이지원, 김효민, 조관희, 유희준, 이은영, 정유선, 정경자, 박계화 옮김, 〈완산계(三山街): 명대 난징의 상업 출판업자〉, 《중국소설연구회보》, 제70-71호, 2008. 3. 22쪽.

65) 루실 차(Lucille Chia), 위의 글, 8-13쪽.

66) 《청루운어》가 출간된 만력 44년(1616) 즈음의 출판 상황 중 판화 그림이 들어있는 책 즉 帶圖本の 성행 역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청루운어》에도 12쪽의 판화가 실려 있는데, 원래는 아이들도 심심풀이로 보던 판화가 만력 이후부터는 판화만을 따로 떼어 보아도 층분이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 판화의 황금시대를 맞았다. 판화가 예술 작품으로 성공하려면 原畫가 좋은 것 외에도, 刻工의 기술이 뛰어나야만 했는데 특히 당시에 徽州 黃氏는 '徽派'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판화를 만든 것으로 유명했다. 《청루운어》에 실린 판화도 '徽派' 刻工인 黃一彬·黃端甫·黃桂芳이 함께 판각했다.

67) 유서는 일반적인 백과 전서, 작문 지침서, 문학 명구집, 작시법 안내서, 이야기 선집, 일상에 유용한 백과 전서(즉 일용유서) 등으로 내용이 다양하다.

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었다. 남송 말에 이르러서는 일반백성들에게 일상생활의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日用類書도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 일용유서는 오늘날의 백과사전의 성격과 비슷했다. 송원 시기 이후에 이러한 종합적인 일용유서가 통속화되어 민간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명대 후기에 와서는 상업의 번영과 함께 다양한 판본이 판각되어 유행했다. 일용유서는 독자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에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용성과 오락성을 겸비하고 있었다.

송원시기의 일용유서가 내용상 농업과 의학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명 후기에는 상업을 중시하여 당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일용유서는 먼저 큰 분류인 門을 두고 그 아래에 몇 개의 세목을 두어 찾아보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천문·지리·사회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의·식·주·음악 등 범위가 광범위하여 물질·정신·사회 생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두루 제공하고 있다. 지면은 상·하를 분리하여 배열하여 원가와 책값을 낮추고 공간을 절약하여 휴대하기 편하게 하였다. 또 그림을 많이 삽입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질은 상업적인 성격을 가졌다.⁶⁸⁾ 명 후기 《萬寶全書》와 같은 일용유서의 경우가 가격도 저렴하여 중간 계층의 일반백성이 구입하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명청시기 일용유서에서 남녀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風月門〉에 실려 있다. 〈풍월문〉은 대체로 일용유서 안에서 중간 부분 이후에 〈侑觴門〉(주흥을 돋우는 것과 관련된 내용)·〈談笑門〉(담소를 나누는 것과 관련된 내용) 등과 앞뒤로 위치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오락 혹은 유희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일용유서 중 〈풍월문〉에는 남녀간의 성행위에 필요한 春藥의 제작기술이나 방중술 등에 관한 지식(‘春閨要妙’), 애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연애편지의 모범적인 예들(‘情書紀要’), 여성의 몸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보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閨閣事宜’), 기방출입시 알아야 할 내용(‘風月機關’) 등이 실려 있어

68) 王姿婷, 《娛樂消費與印刷文化: 以萬曆後期靑樓的情愛書寫與閱讀爲中心》, 臺灣國立暨南國際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22쪽.

縱欲적이고 향락적인 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청루운어》에 실린 《표경》의 경문 대부분이 당시 일용유서에 도 실려 있었다는 것이다.⁶⁹⁾ 현존하는 명대 일용유서 중 《청루운어》의 《표경》 경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된 것은 9종⁷⁰⁾이다. 《청루운어》의 《표경》 경문은 이 9종의 일용유서에서 〈風月門〉 아래에 ‘風月機關’으로 실려 있거나 책에 따라서는 ‘靑樓軌範’이나 ‘靑樓機關’ 등으로 실려 있기도 하다. 《청루운어》의 《표경》 경문과 일용유서에 실려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경문을 풀이한 주석에 차이가 있고 경문의 개수나 순서가 약간 다른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다. 《청루운어》의 《표경》과 《표경》 경문이 실린 일용유서 중 만력 27년(1599)에 출간된 《新刻天下四民便覽三台萬用正宗》⁷¹⁾ 권21 〈靑樓軌範〉의 서로 다른 주석을 예로 들어 본다. 《청루운어》의 《표경》에 嫖客이 기방출입 시 알아야 할 수칙으로 다음과 같은 경문이 나온다.

- 반드시 말도 되고 소도 되어야 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은 길고 다리는 짧아야 하는 것이다(只須應馬呼牛, 最要手長脚短.)⁷²⁾

69) 《청루운어》에 실린 《표경》의 경문 대부분이 당시 일용유서에 실려 있는 외에, 李贄가 편찬한 《開卷一笑》의 권2에도 〈風月機關〉이라 하여 실려 있었다. 이를 통해 《청루운어》에 실린 《표경》의 내용이 당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있음을 알 수 있다. 《청루운어》에 실린 《표경》과 일용유서 중의 해당 부분, 또 이지가 편찬한 《開卷一笑》중의 〈風月機關〉 사이의 선후관계나 상호 영향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70) 현존하는 명대 일용유서 중 《청루운어》의 《표경》 경문이 실린 것으로는 다음의 9종이 있다.

- 《新鐫全補天下四民利用便覽五車拔錦》(만력 25년), 권30, 風月門-靑樓規範-風月機關
- 《新鐫燕臺校正天下通行文林聚寶萬卷星羅》(만력 25년), 권31, 風月門-風月機關
- 《新刻天下四民便覽三台萬用正宗》(만력 27년), 권21, 靑樓軌範
- 《新刻全補士民備覽使用文林彙錦萬書淵海》(만력 38년), 권36, 風月門-風月機關
- 《新板增補天下使用文林妙錦萬寶全書》(만력 40년), 권34, 風月門-風月機關
- 《新刻搜羅五車合併萬錦》(만력 42년), 권10, 靑樓機關
- 《新刻鄴架新裁萬寶全書》(만력 42년), 권10, 風月門

(이 일용유서는 《明代通俗日用類書集刊》 11책에 수록되어 있으나 11책의 권10에서 권17까지가 결본이라 실물 확인이 어렵다)

- 《鼎鉞崇文閣彙纂士民捷用分類學府全編》(만력 연간), 권23, 風月門類-風月機關

- 《新刻群書摘要士民使用一事不求人》(만력 연간), 권19, 風月門-花柳機關

71) 이 책이 당시 인기를 끌었음이 《쾌락의 혼돈》 218쪽에 기술되어 있다.

72) 《靑樓韻語》, 151쪽.

‘應馬呼牛’는 《莊子·天道》에서 비롯된 말로서 ‘呼牛呼馬’나 ‘呼牛作馬’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남이 나를 소라고 부르면 소가 되고 말이라 부르면 말이 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다. 주원량의 《청루운어》 주석은 다음과 같다.

▲ 소미도(蘇味道)도 이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難道模稜至此.)

《新刻天下四民便覽三台萬用正宗》 권21에 실린 〈靑樓軌範〉에서는 위의 경문에 대한 주석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체로 표객(嫖客)이 되는 것은 진지해서는 안 되며, 소라고 부르면 소가 되고 말이라 부르면 말로 응하면 되니, 일에 크고 작음이 없이 세속을 따르면 된다. 대개 기생집에 갈 때는 역시 반드시 절도에 맞아야 하니, 돈쓰는 것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손이 길다(手長)’라고 하고, 쓸 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적으면 ‘다리가 짧다(脚短)’라고 하니, 이렇게 하면 교제할 수 있다.(大率爲子弟者, 不可認真, 呼之以牛, 應之以馬, 事無大小, 從俗可也. 凡走妓家, 亦須中節, 使錢稍寬, 爲之手長, 拉閑數少, 爲之脚短, 斯可處交也.)

여기서 제시한 《표경》 경문의 경우 《청루운어》는 주석이 간략한데 비해 일용유서에 실린 주석은 아주 상세하다. 대체로 일용유서에 실린 주석은 《청루운어》의 주석에 비해 속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경향이 있다. 《청루운어》의 《표경》이 실린 일용유서 9종은 모두 만력 연간에 출간되었으며, 그 중 7종은 《청루운어》가 나온 만력 44년(1616) 이전에 나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루운어》가 나오기 이전에 《표경》의 경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일용유서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루운어》의 〈범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표경》은 옛사람이 지은 것으로, 곧 말이 비속함에 가까운 것이 많고, 기이한 모습을 끌어들여서 인정에 딱 들어맞으니 비단 청루에서 성공할 보증수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세상에 사용하면 통달한 사람이라 칭함에 어울린다. 그래서 매 단락의 머리말로 삼는다.⁷³⁾

《표경》은 ‘옛사람이 지은 것’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청루운어 편찬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표경》 중의 대부분의 내용은 당시 널리 보급된 일용유서에도 실려 있었기에 《청루운어》 편찬 당시에 《표경》에 담긴 내용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용유서 중 〈풍월문〉이 들어있는 판본은 대부분이 만력 연간에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일용유서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승정 연간 이후에 출간된 판본에는 〈풍월문〉에 들어있던 내용 중 춘약(春藥) 처방과 《표경》 경문 등이 〈戲術文〉·〈茶論門〉 등에 덧붙여져 축소되어 실렸다. 또 명대에 비해 보수적이었던 청대에 들어와서는 청초에는 〈풍월문〉 관련 내용이 〈酒令門〉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청대 후기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⁷⁴⁾ 이를 통해 《표경》의 경문과 대부분 일치하는 일용유서 중의 〈풍월문〉 해당 부분이 사상적으로 자유로웠던 만력 연간에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졌으며, 이것이 만력 44년에 나온 《청루운어》에 《표경》이 수록된 것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몽징과 주원량이 《청루운어》를 편찬할 때 이 책의 대중성을 고려하여 당시 일용유서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표경》을 실어 기녀시를 읽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표경》과 기녀시가 결합된 형태인 《청루운어》는 명 후기의 문학의 문화상품화 현상을 보여주며, 교화, 재미, 오락, 낭만, 운치를 두루 갖추어 신흥 독자층의 취향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일용유서의 보급은 《청루운어》의 편찬에 또 다른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73) 嫖經係舊人所作，即語多近俚，而搜引變態，曲中人情，非但爲青樓左券，因之用世，允稱通人，故錄以弁首。(《청루운어》，23-24쪽)

74) 李曉寧，《晚明風月文化：以〈青樓韻語〉爲探討核心》，臺灣國立中正大學 碩士學位論文，2009，7쪽.

3. 결론

《靑樓韻語》는 지방 출입 입문서의 성격을 가진 《嫖經》의 경문 아래 경문과 내용상 관련이 있는 기녀시를 수록한 책이다. 《嫖經》은 전인들이 기방을 출입한 경험을 토대로 기녀와의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 등 청루문화와 청루규범을 논한 책이며, 기녀시는 기녀들의 진솔한 ‘眞情’을 담은 문학이다. 본 논문은 명 후기에 《靑樓韻語》가 편찬되어 출판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陽明學 左派 登場’, ‘主情主義 成立’, ‘靑樓産業 興盛’, ‘風月文化 盛行’, ‘日用類書 普及’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陽明學 左派 登場’에서는 양명학 좌파의 ‘人欲’ 긍정에 주안점을 두어 《靑樓韻語》에 실린 《嫖經》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主情主義 成立’에서는 李贄의 ‘童心’, 湯顯祖와 馮夢龍의 ‘情’, 袁宏道の ‘性靈’ 등으로 대표되는 ‘眞情’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靑樓韻語》에 수록된 기녀시에 나타나는 ‘眞情’과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靑樓業 興盛’은 명 후기 상업 발달과 함께 남경과 양주를 중심으로 청루업이 흥성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靑樓韻語》의 편찬자 장몽징과 주원량도 강남 항주에서 활동한 점과 남경과 양주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의 청루업이 흥성한 상황을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風月文化 盛行’은 당시 상인과 문인들의 기녀와의 연애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러한 상인과 문인들은 기녀시와 《표경》이 결합된 《청루운어》의 잠재적 독자이자 상황에 따라서는 《청루운어》의 편찬이나 출판에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日用類書 普及’은 만력 연간 이후 상업적 출판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널리 보급된 일용유서의 〈풍월문〉에 《청루운어》의 《표경》 경문이 대부분 실려 있었던 것을 서술하여 《청루운어》에 《표경》이 수록된 것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청루운어》의 편찬에 참여한 장몽징과 주원량 등은 현재로서는 그 생평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명 후기 사회기풍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이었음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은 양명학 좌파의 사상적 경향과 주정주의(主情主義) 문학사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녀와의 교류가 빈번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장몽정의 경우 《청루운어》에 실린 명대 기녀의 시 제목에 그의 이름이 나와 기녀와 교류가 빈번했던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명 후기에는 '여성' 혹은 여성이 주체가 된 '염정(艷情)'을 주요 주제로 삼은 책들이 두드러지게 출현했다. 《청루운어》 역시 이러한 책 중의 하나인데, 오랫동안 전해져오던 기녀시와 명대의 기녀시가 명 후기의 의식이 변화된 지식인 계층의 편집자에 의해 《표경》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중국의 고대시가총집 중 기녀시만을 모은 것으로는 《청루운어》가 유일한데, 이러한 기녀시 총집이 유독 명 후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논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參考文獻〉

원전류:

- 張夢徵 彙選·朱元亮 輯註, 中國古代版畫叢刊(二編)·第四輯《青樓韻語》, 上海古籍出版社, 1994.
- 金嗣芬, 《板橋雜記補》, 南京出版社, 2006.
- 謝肇淛, 《五雜俎》, 上海古籍出版社, 2012.
- 余懷, 《板橋雜記》, 南京出版社, 2006.
- 王艮, 《王心齋全集》, 中文出版社, 1975.
- 王畿, 《龍谿王先生全集》上, 中文出版社, 1975.
- 王穉登,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四庫禁燬書叢刊·集部》第一七五冊, 北京出版社, 2000.
- 袁宏道, 《袁宏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1.
- 원광도 저, 심경호·박용만·유동환 역주, 《역주 원중랑집(袁中郎集) 1·2》, 소명출판, 2004.
- 張岱, 《陶庵夢憶》, 上海古籍出版社, 2011.
- 錢謙益, 《列朝詩集小傳》上·下, 世界書局, 1965.
- 李贄, 《焚書/續焚書》,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4.
- 馮夢龍, 《情史》, 馮夢龍全集 37·38, 上海古籍出版社, 1993.
- 馮夢龍 編著, 陸國斌 等 校點, 《馮夢龍 全集》18, 江蘇古籍出版社, 1993.

馮夢龍,《太霞新奏》,《續修四庫全書 一七四四·集部·曲類》,上海古籍出版社,2001.
湯顯祖,《湯顯祖詩文集》,上海古籍出版社,1982.

저서류:

繆咏禾,《明代出版史稿》,江蘇人民出版社,2000.
胡文楷,《歷代婦女著作考》,鼎文書局,1973.
陸樹倫,《馮夢龍研究》,復旦大學出版社,1987.
陶慕寧,《青樓文學與中國文化》,東方出版社,1997.
魏千志,《明清史概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8.
周明初,《晚明士人心態及文學個案》,東方出版社,1997.
周群,《儒釋道與晚明文學思潮》,上海書店出版社,2000.
金嗣芬,《板橋雜記補》,南京出版社,2006.
趙雪沛,《明末清初女詞人研究》,首都師範大學出版社,2008.
黃卓越,《佛教與晚明文學思潮》,東方出版社,1997.
왕서노 저 신현구 역,《중국창기사-삼도진장본: 은대 무창부터 민국의 창기까지 잇는 장구한 역사》, 어문학사, 2012.
미조구찌 유조 외 지음, 동국대 동양사연구실 옮김,《중국의 예치 시스템》, 청계, 2001.
시마다 겐지, 김석근·이근우 옮김,《朱子學과 陽明學》, 까치, 1993
오오키 야스시 지음, 노경희 옮김,《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 2007.
이나미 리즈코 저, 허명복 역,《유쾌한 에피큐리언들의 즐거운 우행》, 가람기획, 2006.
이노우에 스스무 지음, 이동철·장원철·이정희 옮김,《중국 출판문화사》, 민음사, 2013.
티모시 브룩 지음, 이정·강인황 옮김,《쾌락의 혼돈: 중국 명대의 상업과 문화》, 이산, 2005.

논문류:

吳蕙芳,《明清時期民間日用類書及其反映之生活內涵-以《萬寶全書》為例》,臺灣國立政治大學 歷史學系 博士學位論文, 2000.
王艷紅,《明代女性作品總集研究》,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王姿婷,《娛樂消費與印刷文化: 以萬曆後期青樓的情愛書寫與閱讀為中心》,臺灣國立暨南國際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李曉寧,《晚明風月文化: 以《青樓韻語》為探討核心》,臺灣國立中正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陳寶良,〈明代文人辨析〉,《漢學研究》第19卷,第1期,2001.

- 권호중·박정숙, 〈명대 《청루운어》의 편찬 의의〉, 《중국어문학논집》 87호, 2014, 8.
- 권호중·황영희, 〈明清商人的 藏書文化〉, 《中國學報》 제60집, 2009, 12.
- 김종박, 〈명청시기 “土商滲透”현상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제205집, 2010, 3.
- 박원호, 〈明代中期의 徽州商人 方用彬〉, 《동양사학연구》 제74집, 2001, 4.
- 신주리, 《16-17세기 강남의 주변부 문인 연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조동매, 《풍몽룡 《정사》 연구》,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최형섭,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원동, 〈明末 妓女들의 삶과 文學과 藝術(1) -馬守眞, 薛素素, 柳如是-〉, 《중국문학》 제 35집, 2001.
- 김원동, 〈明末 妓女들의 삶과 文學과 藝術(2) -馬守眞, 薛素素, 柳如是-〉, 《중국문학》 제 36집, 2001.
- 김원희, 〈명대 여성주제 문인소설선집에 대한 소고〉, 《중어중문학》 제38집, 2006.
- 루실 차(Lucille Chia), 이지원, 김효민, 조관희, 유희준, 이은영, 정유선, 정경자, 박계화 옮김, 〈싼산계(三山街): 명대 난징의 상업 출판업자〉, 《중국소설연구회보》 제 70-71호, 2008, 3.
- 박철홍, 〈왕간의 철학사상과 양명학〉, 《陽明學》 제18호, 2007.7.
- 송경애, 〈明清시기 揚州 靑樓文化研究 -揚州瘦馬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47집, 2009.
- 최수경, 〈明末의 기녀를 둘러싼 문화적 이미지와 그 의미〉, 《중국어문논총》 제31집, 2006.12.
- 최수경, 〈清代 ‘靑樓筆記’의 양상과 그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어중문학》 제51집, 2012, 4.
- 황영희, 〈유여시(柳如是)의 삶과 그의 시세계〉, 《중국문학》 제56집, 2008.
- 이기훈·황영희, 《靑樓韻語》 판본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47집, 2014, 6.

〈中文提要〉

明代中期出现的阳明学主张‘心即理’, 张扬了性理学所否定的性情。它包括偏离性情的私欲的肯定, 甚至到了后来的阳明学左派, 进一步肯定了人欲。明代後期开始出现了受阳明学

左派影响的‘主情’文化思潮。‘主情’文化思潮主要以李贽、汤显祖、袁宏道、冯梦龙等人为代表。他们主张人性的解放和文学作品的真实情感。李贽的‘童心’；汤显祖和冯梦龙的‘情’；袁宏道的‘性灵’等，都表达了‘真情’，只不过其表达方式不同而已。当时的时代潮流是以情为本，并倾向於享乐。因此当时的後期文人与名妓交往，甚至彼此相爱，这可以说是他们渴望精神解放和追求真正爱情的一种表现。

《嫖经》是出入青楼的入门书，《嫖经》的经文下收录有关妓女的诗词，这就是《青楼韵语》。《嫖经》以前人出入青楼的经验为基础，谈论与妓女相爱的具体方式、以及青楼文化和青楼的规范。妓女诗是表达妓女真情的、毫无虚假的文学。因此可以说《青楼韵语》通过收录《嫖经》反映了阳明学左派肯定人欲的倾向；同时通过收录妓女诗，反映了主情文学思潮的倾向，即文学应重视真情表现的主张。编撰《青楼韵语》的张梦徵和朱元亮等文人，我们虽然无法考察他们的生平，但不难推测他们是受明代後期社会思潮影响的人物。他们大概都是受到阳明学左派的思想倾向和主情文学思潮的影响，并与妓女频繁交往的文人。实际上在《青楼韵语》记载的明代妓女的诗词题目里就出现过张梦徵的名字，从这里可以确认他与妓女的交流是非常频繁的。

明代後期大量出现‘女性’或以女性为主的以‘艳情’为主题的书籍。《青楼韵语》就是其中之一。流传已久的妓女诗和明代的妓女诗，被明代後期思想进步的知识分子阶层编撰者重新得到整理之後，以崭新的面貌呈现出来。中国古代诗歌丛集中收集妓女诗的只有《青楼韵语》，这些荟萃妓女诗的丛集能够在明代後期得以诞生，就是因为上述的文人风格以及出版行业的盛行这一社会现象在做後盾。

關鍵詞：青樓韻語，明後期，陽明學左派，主情，妓女詩，嫖經，張夢徵，朱元亮，青樓業，日用類書

이 논문은 2014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11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11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